

3. 부분공간

#선형대수

#프리드버그

부분공간이란?

정의

- F -벡터공간 V 의 부분집합 W 가 V 에서 정의한 합과 스칼라곱을 가진 F -벡터공간이면 V 의 부분공간이다
- $\{0\}$ 은 점공간인 부분공간이라 특별히 칭한다

부분공간 필요충분조건

- W 에 속하는 모든 x, y 에 대하여 $x + y$ 도 W 에 속한다(덧셈에 대하여 닫혀있다)
- F 에 속하는 모든 c 와 W 에 속하는 모든 x 에 대하여 cx 도 W 에 속한다(스칼라 곱에 대하여 닫혀있다)
- W 는 영벡터를 포함

부분집합에 대한 부분공간 증명

- 전치행렬(transpose matrix) : A^t 로 표기하며 A 의 행과 열을 바꾸면 된다. 즉 $(A^t)_{ij} = A_{ji}$
- 대칭행렬(symmetric matrix) : $A^t = A$ 인 행렬.
 - 대칭행렬은 합과 스칼라곱에 대해 닫혀 있다.
 - $M_n(F)$ 의 모든 대칭행렬을 원소로 하는 집합 W 는 부분공간이다.
 - 영행렬의 전치행렬은 영행렬이기에 영행렬도 W 의 원소.
 - A, B 가 부분집합 W 에 속한 원소면, $A^t = A, B^t = B$ 이고 $(A + B)^t = A^t + B^t = A + B$ 이다. 즉, $A + B$ 도 W 에 속한다.
 - 부분집합 W 에 속하는 A 원소면 $A^t = A$ 이고 임의의 스칼라 a 에 대하여 $(aA)^t = aA^t = aA$ 이다. 즉, aA 도 W 에 속한 원소다.

부분공간 대표종류

다항함수

- 음이 아닌 정수 n 에 대하여 n 이하의 차수를 가진 다항식 $P_n(F)$. $P_n(F)$ 는 $P(F)$ 의 부분집합.
 - 영행렬은 차수가 -1 . 그러므로 $P_n(F)$ 에 속함
 - 차수가 n 이하인 두 다항식을 더하면 n 이하이다.
 - 스칼라를 곱해도 차수가 바뀌지 않는다.
- 위 3가지 조건을 만족했기에 부분공간.

연속함수

- 실수집합 R 에서 R 로 가는 모든 연속함수의 집합 $C(R)$. $C(R)$ 은 $F(R, R)$ 의 부분집합
 - $F(R, R)$ 에 속한 영함수 $f(t) = 0$ 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치역이 0인 연속함수
 - 두 연속함수의 합은 연속함수. 스칼라와 연속함수의 곱도 연속함수.
- 3가지 조건을 만족했기에 부분공간

삼각행렬과 대각행렬

- 상삼각행렬(위삼각행렬, upper triangle matrix) : 대각성분 아래의 성분이 모두 0. $i > j$ 일 때, $A_{ij} = 0$.
- 대각행렬(diagonal matrix) : 대각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이 0인 정사각행렬. $i \neq j$ 일 때, $M_{ij} = 0$.
- 증명
 - 영행렬은 대각행렬. $n \times n$ 대각행렬 A, B 는 $i \neq j$ 일 때, $(A + B)_{ij} = A_{ij} + B_{ij} = 0 + 0 = 0$, $(cA)_{ij} = cA_{ij} = c \cdot 0 = 0$
 - 대각행렬의 집합은 $M_n(F)$ 의 부분공간
 - $n \times n$ 행렬 M 의 대각합은 모든 대각성분의 합이고 $\text{tr}(M)$ 으로 표기
 - $\text{tr}(M) = M_{11} + M_{22} + \dots + M_{nn}$
 - 대각합이 0인 $n \times n$ 행렬의 집합은 $M_n(F)$ 의 부분공간
- 모든 성분이 음이 아닌 실수인 $m \times n$ 행렬의 집합은 $M_{m \times n}(R)$ 의 부분공간이 아니다.

부분공간으로 부분공간 제작

정의

- 벡터공간 V 의 부분공간들 교집합은 V 의 부분공간
- 벡터공간 V 의 합집합은 합에 대해서 닫혀있다 단언할 수 없음. 그래서 부분공간이 아님.
 - 각 집합은 집합 내부의 원소들끼리의 합은 보장하지만, 두 집합이 합쳐진 영역에서 두 집합의 각 원소를 더한 합이 존재할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.

연습문제

명제 진위 판별

- (a) 벡터공간 V 의 부분집합 W 가 벡터공간이면 W 는 V 의 부분공간
 - T : 영행렬은 벡터공간이기에 당연히 보유. 벡터공간으로서 벡터합과 스칼라곱 또한 보장하며 W 의 모든 원소가 V 내부에 존재하기에 V 부분공간이 맞다.
- (b) 공집합은 모든 벡터공간의 부분공간이다
 - F : 원소에 대한 항등원을 보장할 뿐, 공집합까지 보장하지 않는다
- (c) V 가 점공간이 아닌 벡터공간이면 V 에는 $W \neq V$ 인 부분공간 W 를 포함
 - T : W 가 점공간이 되면 된다.
- (d) 벡터공간 V 에서 두 부분집합의 교집합은 항상 V 의 부분공간이다.
 - F : $V_1 = \{0\}$, $V_2 = \{1\}$ 일 때, 교집합은 공집합이다. 공집합은 부분공간으로 치지 않는다.
- (e) $n \times n$ 대각행렬은 0이 아닌 성분의 개수가 n 을 초과할 수 없다
 - T : 대각행렬은 대각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이 0이다. 대각성분은 n 개이므로 n 을 초과할 수 없다.
- (f) 정사각행렬의 대각합은 대각성분의 곱이다.
 - F : 대각합은 모든 대각성분의 "합"이다
- (g) R^3 에서 xy 평면을 $W = \{(a_1, a_2, 0) : a_1, a_2 \in R\}$ 이라 하면 $W = R^2$
 - F : 구조적 관점에서 동형 사상을 가지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구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.

상삼각행렬 부분공간 증명

- 상삼각행렬 $M_n(F)$ 는 부분공간인가?
- 증명

- 상삼각행렬은 $i > j$ 일 때 원소는 모두 0. 그 외 원소는 값을 따지지 않는다. 그러므로 영행렬을 포함한다.
- $A + B = \text{SUM}(A_{ij} + B_{ij})$ 를 만족. $i > j$ 인 경우는 각 원소값이 0이기에 더해도 0이므로 여전히 상삼각행렬의 정의를 준수한다.
- cA 또한 스칼라 c 에 대해서 음이든 양이든 값을 곱하더라도 $i > j$ 인 경우는 각 원소값이 0이기에 곱해도 0이다. 상삼각행렬 정의 준수.
- 3 조건을 전부 만족하므로 상삼각행렬은 부분공간이다.